

傳公州出土 金銅思惟像

姜友邦

一。

傳忠清北道公州附近出土 金銅半跏思惟像은 지금 小倉庫裏의 하나로 東京國立博物館의 東洋館에 展示되어 있다. 日帝時 이 像을 수습할 때 어떤 經路를 거쳤는지 모르겠지만 日人들이 이 佛像을 소개할 때 ① 公州附近에서 出土했다고 말하고 있으니 우선 잠정적으로 傳公州附近出土라고 하여도 무방할 것 같다.

이 金銅半跏思惟像은 몇가지 점에서 三國時代半跏像과은대 重要한 자리를 잡고 있다고 생각한다. 첫째, 이것은 확실한 근거는 없지만 傳公州附近出土라는 점에서 百濟에서 製作되었음을 시사해 주고 있다. 아직 金銅思惟像과은대 百濟地域에서 出土된 확실한 예가 없으나, 百濟에서도 公州라는 百濟文化圈의 產物임을主張케 하는 惟一한 例로써 일단 問題視하고 싶었다. 둘째, 이 像은 20cm 内外의 金銅思惟像中 상당히 進展된 寫實的인 造形性을 획득하고 있다. 小形의 金銅思惟像은 대부분 非寫實的이며 또 이 非寫實性에서 유도된 硬直性(보통 抽象性이라고 일컫는 特性)을 피우고 있는 것이 보통이지만 이 像은 構成에 있어서 거의 完備한 造形을 얻고 있어서 寫實性、安定感(均衡)、아름다움 등이 한物體에서 完遂된 佳作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像은 小像에서 一貫되어 나타났던 硬直性을 脫皮하고 克服한 劃期的인 作品이라고 생각되며 舊德壽宮博物館藏 金銅半跏思惟大像 ②의 出現을 可能케한 점에서 特別히 注目되어야 할 것 같다. 따라서 이 小像은 三國時代思惟像의 여러 문제 중 가장 重要한 매듭을 풀어 줄 것 같다.

一。

그러면 이 像의 細部形式과 造形性(樣式)을 살펴 보겠다.

이 思惟像은 전체에 비하여 顔面길이와 거의 같은 높고 큰 寶冠을 쓰고 있다. 寶冠의 主要部分은 正面에 半楕圓形을 中心으로 하여 上部와 左右를 둘러싼 花葉裝飾이며 二條의 寶冠帶를 양 옆의 圓形돌기로 마무리하고 돌기를 중심으로 부채꼴모양으로 세가닥진 裝飾은 이 正面裝飾에 對하여 중축의 위치에 있는 것이다. 원래는 主要裝飾과 分離되어 있는 것이나, 여기서는 한데 합쳐져 있고 필요이상으로 크게 彫出되어 寶冠의 兩翼裝飾처럼 보인다. 가는 가닥으로 처리될 것이 이 처럼 둔중하고 크게 그리고 主要裝飾과 함께 彫出한 것은 이 같은 小像을 鑄造할 때 必然的인 것이다. 옆 머리에서 垂下된 寶髮은 어깨에서 圓裝飾으로 일단 머문후 세 가닥으로 나뉘어 上腕부분을 덮고 있다. 이러한 寶冠形式은 國博藏이었던 金銅思惟大像의 것과 같다. 後者の 것이 훨씬 복잡하고 사실적으로 彫出되어 있고 本像의 것은 그것을 略化한 것으로 同一系統의 것으로 생각된다. 國博藏것도 寶冠과 얼굴과의 관계(頭部의 側面觀에서 간취되는 관계)가 本像과 매우 흡사하여 寶冠만 가지고 비교한다면, 다른 像에서는 보기 어려운 길은 親緣性을 피우고 있어서 흥미롭다.

顔面各部는 매우 부드럽고 조심스럽게 彫出한 溫和한 表情이 전혀 形式化되지 않은 生々한 面貌를 보여주고 있다. 눈은 크게 뜬 편이며, 코·입 등은 전년 날카로움이 없도록 부드럽고 작게 表現하여 은은한 미소를 풍기고 있다. 얼굴 세부를 마무리정리 할 때 끝로 다듬어서 銳角이 나타나는 것이 보통이나 本像에서는 거의 끝 자국이 없을뿐 더러 다른 부분에서도 그런 자취가 없다.

귀는 단순하게 彫出하였고 매우 길어서 목 중간부까지 이르고 있다. 上體는 思惟像에서 흔히 보이는 變形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 약간 기울은 얼굴을 살피시 中指로 받친 右手나 右足 위에 올려놓은 左手는 가벼



傳公州 出土 金銅思性像(正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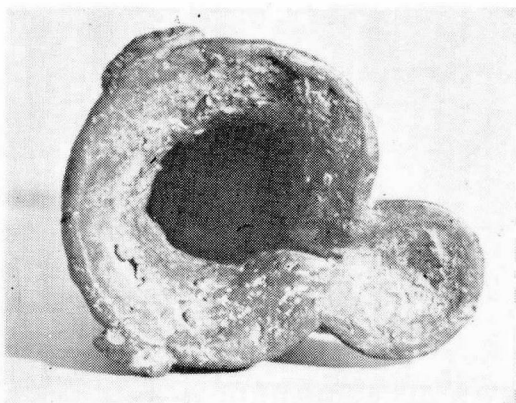
은 움직임이 律動을 타고 있다. 金銅小像에서 이러한 微妙한 動態가 있는 것은 이것뿐만 아니라 舊德美藏思惟大像에서 다시 찾아볼 수 있게 된다. 목에는 單純素朴한 頸飾이 있고 上腕과 손목에 역시 單純素朴한 細飾이 두툼하다. 下體는 매우 견고하고 두터운 裳으로 조여 있는 듯하나 질서정연하고 깊은 衣褶의 彫出로 安定感을 얻고 있다. 오른쪽의 半跏한 다리 부분의 衣褶은 三條의 깊고 확실한 陰刻線을 縱으로 표현하고 그 밑의 衣褶은 높고 두툼한 三條의 陽刻線을 橫으로 彫生하여 方向과 凸凹에 있어서 意識的인 對照를 이루게 考察하였다. 전체적으로 보면 臺座以上の 衣褶에선 陰刻線으로 臺座에 垂下된 衣褶은 隆起線으로 처리하여 衣褶의 對照를 이루고 있다. 발목부분에서 衣端이 한번 험차게 져진 것은 舊德美藏의 것에서나 볼 수 있는 意匠이며 다른 예에선 찾을 수 없다. 그런데 右膝 밑부분은 흔히 위로 처받쳐져서 突出되



左側面



右側面



底面

되어 있는데 이 경우는 정반대로 아래로 垂下되어 臺座에 垂下된 裳부분을 감싸 오무리고 있다. 中國思惟像의 경우는 대부분 위로 突出되어 무릎을 받치고 있다. 本像과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三國期金銅思惟小像 가운데 몇가지 예가 있는 걸 보면 이러한 또하나의 形式은 우리나라에서 成立된 要素인지도 모르겠다. 이러한 裳端처리로 인해 本像의 右膝이 유난히 두텁게 彫出되었다. 墩座에 垂下된 古式衣褶은 질서정연한데 二重을 이룬 것이 特異하다. 즉

垂下된裳의衣褶 밑을 또 하나의 다른層으로反復하고 있는데 이것은墩座를 감싼 넓게 주름과의 혼동을 피하기 위하여 또한 가지는小形の鑄造技法上 垂下衣褶과墩座사이의空間을메꾸기 위하여 考案된 듯하다. 小形の鑄物에서는空間처리가 매우 어렵기 때문이다. 垂下한左足の衣褶은 길은陰刻線으로 처리하였다. 이로써 보면本像에서는身體에 부착된裳의褶襞은 모두陰刻線으로 처리하였음을 알 수 있다. 背面的衣褶은 깊고鈍重하게彫出하였고墩座의 넓게 주름의 변화와調和를이문점으로 보아本像의製作者는本像을完全한圓像으로彫刻하려는意圖를 가졌음이 分明하다. 허리 양쪽에서 垂下된 卍裝飾은臀部에서 한번 깔려서 휘돌며 다시 垂下되어墩座에 이르고 있다.墩座에서 내림머리는 空間을 지니고 垂下되는데 이런 것은 다른 思惟像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特色이다. 이 내림裝飾은 매우 두터워 純重한데 이것도鑄造技法上 必然的인 것이다. 즉鎔銅을 부어 넣을 때 채널이 가느다란 홈이 들어가기 어려우므로 필요 이상으로 두텁게 彫出한 것이다. 양 옆의 내림裝飾은 각각 다르다. 右側 내림裝飾은 나비매듭에 가깝고 左側 것은 長方形裝飾으로 매듭진 화려한 내림머리로서 對照를 이루고 있다.

墩座의 넓게 주름은 衣褶과 同一한 形式으로 질서 정연하다.墩座의下部에 두리는 蓮華座로 넓게 처리되었고 足座가 역시 이 테두리와 同時鑄造되어 있다. 蓮華文은 百濟瓦當에서 흔히 보이는 등골고 두툼한素瓣이며 瓣端이 反轉하여 있다.墩座테두리와 足座를 이렇게 똑같은 모델링, 똑같은 文樣으로 同時彫出한 것도本像의 特色이며 全體의 安定感을 크게 돕고 있다.墩座는 전체 비례로 보면 매우 작고 낮으나 이것을二重三重的 정연하고 변화있는衣褶으로 감싸서 무게를 더하고 있으며 아름답고 두툼하고 넓은 아래 테두리가全體像을 힘있게 떠 받치고 있다.

이렇게 本像의 細部를 分析하고 考察해 나가노라면 小像으로써는 놀라운 造形性을 획득하고 있어서 大像을 만났듯한 느낌이 든다. 小形으로써 이렇게 寫實性을 完遂한 것도 드물고 全體像을 一貫하여 흐르는

圓刻의 意圖도 찾아보기 어렵다.

三.

다음엔 本像의 鑄造技法과 이와 관련된 造形性을 考察하겠다.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本像은 다른 金銅小像에서 흔히 보는 것 같은 扁平性과 硬直性이 克服되고 完全한 圓刻에의 意志가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우선 그 實現으로써 本像에서는 아무리 정리——끝로써 細部를 정리하여 銳角을 나타내는 일——가 일체 없이 원래의 蜜蠟彫刻 그대로를 靑銅으로 탈바꿈한 것이다. 즉 線彫가 없다고 해도 過言이 아니다. 左右膝部分의 陰刻衣褶은 깊고 넓게 파내어서 線彫라고 할 수 없다.鑄物後 끝로 細部를 정리하지 않기 위해 처음부터 細密한 部分을 두텁고 크게 彫刻하였던 것이다. 그리하여 두텁고 큰 寶冠裝飾, 어깨의 하늘거리는 純重한 寶髮, 두터운 頸飾과 腕劍, 허리 左右에서 臺座와 分離하여 垂下된 내림머리의 굵은 裝飾 등이 產出된 것이다. 이러한 여러 細部의 結果는 결국 이 像을 처음부터 立體的으로 完全한 圓刻으로 計劃하였기 때문에 말미암은 것이다. 따라서 完全한 圓刻으로의 意志가 나타나고 實現된 것은 小像으로는 이 金銅思惟像이 처음이 아닌가 한다. 그리하여 손의 微妙한 律動感, 臺座에서 分離된 左右垂下飾 등이 試圖된 것 같다. 全體像의 두텁고 무거운 느낌과 더불어 이 像은 매우 安定感을 획득하고 있는데 그것은 작고 낮은墩座와 넓게 퍼진墩座의 下部테두리에서 말미암은 것이다. 이러한 臺座形式은 韓國에서 確立된 우리나라 獨特한 形式인데 中國이나 日本 것처럼 像에 비하여 높고 넓은 臺座形式과는 전혀 다른 것이며 이런 낮은 臺座에서 像의 놀라운 安定感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이상의 여러 가지 점들의 完遂를 위하여 蜜蠟을 두텁게 문쳐놓고 彫刻하였다. 그러니까 中型은 조그맣게 成型하여 두텁게 蜜蠟을 입힌 후 외부 彫刻에 注力하였음을 알 수 있다. 立體的 彫刻을 위하여는 우선 蜜蠟層이 두터워야 하는데 이러한 鑄造技法과 圓刻과의 밀접하고 필연

적인 관계는 舊德美藏像에서 同一하게 일어나고 있다. 舊德美藏思惟大像에서도 강한 立體性이 성용하고 있고 많은 부분에서 律動感이 일어나고 있는 것은 두터운 銅層의 背景 없이는 불가능한 것이었다.

本像의 背面에는 목널미에서 허리에 이르기까지 긴 長方形三、二×一、四cm의 윤곽이 보이는데 이것은 型持의 역할로 보기에는 너무 크고 또 中型土를 제거하기 위한 구멍으로 보기도 어려워 統一新羅金銅佛特徵인 背面의 圓形空洞의 先驅라 할 수 있는 幅置자리가 아닌가 생각된다③. 이像은 원래는 鑲金이 있었다. 右膝과 그 밑부분衣褶에 그리고 左膝 부분과 臺座一部에 鑲金이 남아있다. 머리 뒤에는 頭光을 위한 竈다리가 부착되어 있다. 이像의 底部를 들여다 보면 內部는 목부분까지 空洞이며 內面이 깨끗하지 못하다④.

四.

결국 本像은 小形이지만 完全한 圓刻으로의 意志가 나타나고 있어서 重要하다. 또 이러한 同一한 意志가 舊德美藏思惟大像에서도 발견되어 더욱 重要하다. 筆者는 小形金銅思惟像들과 舊德美藏思惟大像사이의 乖離가 너무 커서 그 상호간의 展開過程이나 連續性이 결여된 것이 의문점이었으나 이 小像에서 舊德美藏像의 可能態를 발견하게 된 것이다. 하나는 總高 十六·三cm이고 또 하나는 九·一cm의 大型이지만 兩者는 다른像에서 보기 어려운 동일한 造形意志가 엿보이기 때문이다. 비록 寶冠은 오히려 國博藏이었던 思惟大像과 강한 親緣性이 있고 寶冠내림머리가 생략되고 垂髮이 노출된 것도 國博藏과 어떤 관계가 있는 듯 하나 이러한 부분보다도 全體의 造形性은 이미 앞서 여러가지 점에서 지적한 것처럼 舊德美藏과 더 가깝다. 따라서 이 傳公州出土思惟像은 三國時代思惟像의 特性인 扁平性、硬直性、變形性을 超克한 唯一한 小像이며 半跏思惟像의 最大의 조각인 舊德美藏의 出現을 暗示하는 貴重한 彫刻인 것이다.

결국 이 小像은 다른 金銅小像群과 구별되는 造形性을 띄우고 兩金銅大像과 관련을 맺게 된다. 그리고 本像은 出土地가 확실한 古新羅의 金銅思惟像들, 安東玉洞出土像이라든가 金泉郡開寧面出土像、慶州城乾洞出土像 등의 硬直性과 粗雜함과는 전혀 다른 造形性을 띄우고 있어서 百濟에서 製作되었을 가능성이 많으며 이러한 推定은 舊德美藏思惟像의 製作地의 推定에도 시사하는바가 있을 것이다.

製作年代에 대해서는 이것이 完全圓刻像으로써 寫實表現에 성공했다고 해서 모든 小像의 다음에 들 수 없을 것이다. 또 모든 小像들과 견주어 어느 時期에 들 것인지도 갑자기 推定하기도 어렵다. 하여튼 中國의 영향을 탈피하여 韓國特有의 造形을 이룩한 것만은 틀림없는데 이러한 現象이 언제부터 일어나기 시작하였는지 지금 斷言하기 어렵지만 百濟文化가 最絶頂을 이루었던 600年 前後期에 두고 싶다.

韓國의 金銅思惟像은 出土地가 확실한 것이 드물고 年代가 확실한 것은 전혀 없는 상태여서 編年이 어렵다. 더구나 韓國것은 中國의 石像과 달라 金銅像이어서 造形上으로 差異가 必然的으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中國思惟像과의 比較에 의한 形式規明과 年代推定이 더욱 어렵다.

〈註〉

- ① 中吉功「新羅·高麗의 佛像」一九七一年 P六七「本像은 公州의 二里밖의 寺址의 石塔에서 발견되었다고 전한다」라고 밝히고 있으나 확실한 근거는 알 수 없다.
- ② 大像이라고 불려본 것은 二〇cm內의 群小金銅佛과 等身大에 가까운 金銅思惟像과를 구별하기 위한 것이다. 작은 金銅佛과 큰 金銅佛은 造形過程이 다르므로 한데 묶어서 다룰 수 없다.
- ③ 型持는 中型土와 外型土 사이에 鎔銅이 잘 흘러들어서 오도록 空間을 유지하는 기능을 갖고 있으며 幅置는 兩者를 固定시키는 기능을 갖고 있다.
- ④ 이 底部의 構造도 舊德美藏思惟像의 底部와 同一形式이다. 특히 足座底部의 凹部의 表現과 墩座미두리의 結合은 거의 同一하다.

(國立慶州博物館 學藝研究官)